대혜종고 통한 선 길라잡이



간화선 창시자의 禪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에 의해 간화선을 창시한 대혜종고의 어록 전체가 2011년, 드디어 완역되었다. 상권에서는 법을 보는 안목, 공부에 대한 조언, 잘못된 공부에 대한 경고, 방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본보기가 되는 공부 등 간화선 창시자 대혜 스님이 학인들을 지도하던 방법을 소개한다. 하권에서는 대혜 스님 간화선의 핵심을 밝히며 표준 모델을 구성하고, 스님의 간화선이 무문혜개 · 고봉원묘 · 몽산덕이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하여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길잡이가 되도록 했다. (상 · 하 全 2권)

김태완 지음 | 침묵의 향기 펴냄 | 4만2000원

한국불교가요가 걸어온 길



한국 고전시가의 불교문화 수용 양상

한국 고전시가가 불교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양상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향가의 형성 배경을 불교 게송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데, 각 시대별 불교계 동향을 토대로 고전시가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살피고 불교문화를 수용해 창작된 작품들을 내용에 따라 8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한국불교가요가 지닌 문학성을 드러내는 한편 그 변화 · 발전 양상을 종교가요의 특이성 측면에서 고찰한다.

조평환 지 | 조율 펴냄 | 1만5000원

명진 스님의 말 · 말 · 말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물질적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욕망에 성찰을 촉구하는 책이다.

저자는 현 정부의 거짓과 잘못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비움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봐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충고한다. 자기에 대한 집착이 사회와 주변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며 행복은 욕망을 버릴 때 성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세상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운 불교 수행자로서 현실의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명진 지음 | 말글빛냄 펴냄 | 1만5000원

동화로 재구성한 '왕오천축국전'



혜초, 실크로드를 왕오천축국전에 담다

〈왕오천축국전〉을 동화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혜초의 삶과 업적은 물론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역사와 문화, 정치와 사회상까지 한 눈에 살필 수 있다.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체 이야기 전개와 별개로 지리, 언어, 종교, 건축 등에 관한 정보를 따로 정리해 둔 점이 눈에 띈다.

최근 역사 교육에서 강조하는 교류사의 가치를 충실히 담아내고자 한 흔적이 엿보이는 책이다.

김대호 지음 | 아카넷주니어 펴냄 | 1만1000원

오대산의 법통 체계적으로 조명

한암문도회, 희찬 스님 가르침 다룬 '오대산의 버팀목' 펴내



오대산의 버팀목

월정사 · 김광식 엮음
오대산 월정사 펴냄
비매품

조계종 종정을 네 차례 역임한 한암 스님의 마지막을 지키고 민족 비극사인 한국전쟁으로 인해 전소된 월정사를 복구시킨 주역 만화 희찬 스님.

오대산 법통의 주역이며 오대산 중창주로까지 추앙받는 만화 희찬 스님의 삶과 수행, 그리고 가르침을 조명하는 움직임이 2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 한암문도회는 〈오대산의 버팀목: 만화 희찬 선사의 수행과 가르침〉을 펴냈다.

책은 그동안 세상 사람들과 불자들이 알지 못한 희찬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담았다. 특히 희찬 스님의 생전 모습을 40여 명의 증언과 회고를 통해 전한다. 책에서 그들은 희찬 스님을 수행자, 구도자이며 효상좌로 한암 스님의 정신을 구현한 스님이라고 증언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희찬 스님은 선공후사, 헌신 그 자체였다"며 은사인 희찬 스님을 기렸다.

1922년 7월 1일 평안남도 덕천에서 태어나 18세인 1939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희찬 스님은 1939년 한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한암 · 탄허 스님 밑에서 학문과 수행에 매진했다.

1945년 상원사 원주로 1949년부터는 노사인 한암 스님을 시봉한 스님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와중과 1951년 한암 스님 열반 시에도 곁에서 지켰다.

1953년 상원사 주지, 1955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월정사에 주지로 취임하며 은사 탄허 스님을 도와 오대산에 수도원을 개설하는 등 가람일신에 나서는데 특히 월정사 대웅전을 중창하면서 벌목문제로 네 번에 걸쳐 구속되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진행한 일화가 유명하다.

당시 "월정사 나무를 베어 월정사 법당을 짓는데 죄가 될 수 있는가? 형무소에 몇십번을 가더라도 법당을 꼭 중건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1969년 결국 대웅전을 준공시켜 월정사 사격의 주춧돌을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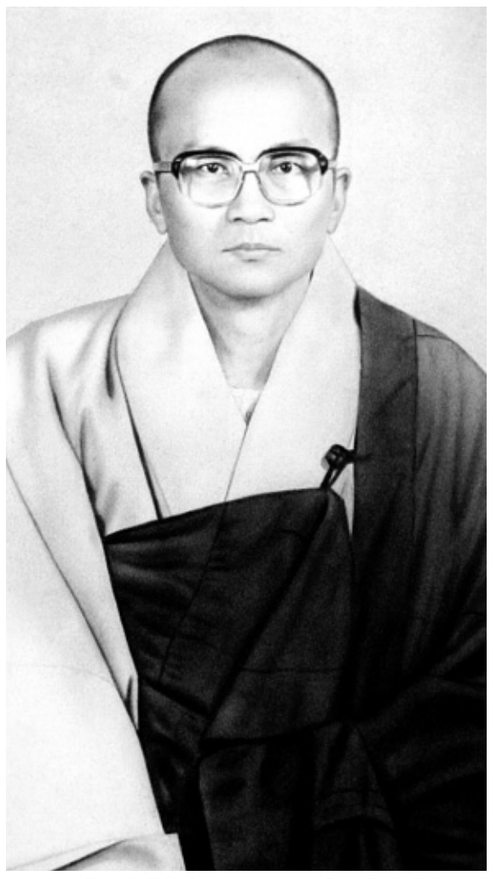
책에서 말하는 희찬 스님은 어떤 스님일까. 책에서 탄허 스님을 시봉한 조계종 원로 도광 스님은 당시 어려운 월정사 재정으로 인한 수도원 운영에 관한 일화를 소개한다.

도광 스님은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어 희찬 스님은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양봉을 해서 쌀을 사왔습니다. 항상 스님은 일에 앞장서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희찬 스님이 어려울 때 월정사 복원에 나선 일은 대단히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고 술회했다.

책에서는 이처럼 희찬 스님의 개인사와 함께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을 비롯해 오대산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스님들의 역사까지 함께 다룬다. 희찬 스님의 삶이 월정사를 비롯한 오대산 일대의 근현대사와 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대산 근현대 불교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대산의 버팀목〉은 월정사 중창 과정에서의 불사 정신과 과정, 에피소드 등을 함께 담고 있다. 법어와 어록 중심의 기록인 고승열전을 넘어 불교사 현장에서의 생생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제자들이 회고한 스님과의 인연담을 통해 옛 스님들의 절 생활도 엿볼 수 있다. (033)339-6800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오대산 월정사 법통을 잇고 전란에 소실됐던 당우 등을 복원해 오늘날 월정사가 있게 한 선지식 희찬 스님의 진영

석굴암 천개석은 왜 깨어졌을까

석굴암 창건의 비밀 담은 소설 '재상의 꿈'



재상의 꿈

박준수 지음
스타북스 펴냄
1만3000원

석굴암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 민족의 대표 문화재이다. 신라시대 김대성이 창건한 석굴암을 두고 현재까지도 학계에서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2석굴암' 건립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석굴암을 소재로 한 소설 〈재상의 꿈〉이 출간됐다. 저자 박준수는 석굴암 창건자 김대성에 관한 〈삼국유사〉 기록을 바탕으로 나름의 상상력을 더해 한 인간의 긴 인생 역정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그려냈다.

책은 노년의 김대성이 꿈처럼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대성이 모벌군에 병부 대감으로 부임한 뒤 옛 백제 유민들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명목으로 잔혹하게 학살됐다. 유민들을 몰살하는 강경파들 앞에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대성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이후 경덕왕은 대성의 힘을 길러주며 외척에 휘둘리지 않는 왕권을 확립하고자 시도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경덕왕도 다른 왕들처럼 진골 귀족들과 타협하기에 이르렀다.

대성은 '속세에서 구하고 행' 하고자 했으나 그 열의는 끝내 좌절됐다. 현실에서 철저한 패배를 맛본 김대성은 20여 년에 걸쳐 불국사와 석굴암 조영 사업에 매진하며 못다 한 꿈을 이루고자 했다. 그러나 그조차 천개석이 세조각으로 깨어지면서 통일 이후에도 대립하고 있는 삼국민의 모습을 절묘하게 드러냈다.

저자는 "석굴암을 볼 때마다 나는 늘 궁금했다"고 회고한다.

"이렇게 위대한 건축물을 1200년 전에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창건주로 알려진 김대성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석굴암과 비슷한 건축양식은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본존불 위의 천개석은 언제 어떻게 깨어진 것일까요?"

저자는 "석굴암 창건 동기가 호국이고 국가 주도 조영 사업이었다면 20여 년 동안 공사하면서 어째서 깨어진 천개석을 그대로 올려 덮었겠냐"고 반문한다. 그리고 그 해답을 〈삼국유사〉에서 찾아 글로 풀어냈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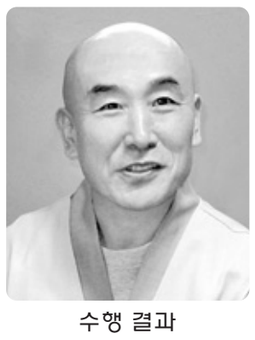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21~12/27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뜰
3	엄마수업	법륜	휴
4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명진	말글빛냄
5	죽어야 나를 보리라	대행	한마음출판사
6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도법	불광출판사
7	스님은 사춘기	명진	이솔
8	지관수행	천태지의	비움과소통
9	석인은 물을 긷고 목녀는 꽃을 따네	진제	매일경제신문사
10	크게 죽어야 크게 산다	정찬주	김영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생활속의 간화선
불교방송 출연중!! 밤 9시 55분
생각다스리는 수행론 출간
간화선(看話禪)

수행 결과
• 법화경 독송증 법열
• 화엄철야 21일 신중조복
• 만행을 통하여 애착버림
• 낙엽밟는 소리 생각그침
• 우울증 한순간 원인제거
• 금강삼매경(수행론) 출간예정(12)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좋다, 싫다하는 차별 없는 것이 공(空)에 들어간 것이나 정진하여 공(空)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상승 법인 선(禪)이다. 간화선 수행이 생활의 일치 되도록 경전인용과 일상가 운데 증득을 바탕으로 서술 한 책이다.
깨달음은 본인 스스로 안다.
이제는 방편을 말하리라.
2차 - 수행론 강의 2월 2일 개강 (접수중)
매주 목요일 밤 7시 30분 ☎ 031)721-2148~9
무아선원 선원장 혜원 합장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아주미디어
대표 오태준
콘서트. 체육대회, 대학축제, 지역축제
음향, 무대, 조명, 의자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42-6
전화 062)381-8052 / 팩스 062)381-8056 / 010-3624-2321